



尹 정부, '장관 등 22대 총선 출마 잔걸음' 초읽기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대대적인 개각을 앞둔 12월의 물결은 거슬리지 못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됐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나온 개각은 사퇴하는 장관들의 여의도 행을 뜻하는 것으로 분석하지 않는 국민은 거의 없을 정도다.

이미 타오르기 시작한 총선의 향방은 시작하는 장관들의 면모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 윤 정부의 참모진 또한 수석·비서관 등 국힘당 합류는 불 보듯 뻔한 총선 출마의 잔걸음으로 여의도 아닌 12월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 대항마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원희룡·한동훈 장관 등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국힘 내부도 밀려드는 핵심 윤 정부 인사들의 거센 밀물은 거부할 수 없는 현 정국의 무게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는 앞장섰던 지도부의 모습은 무력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컨트롤타워가

원희룡·한동훈·추경호 장관, 총선 출마 기정사실화
대표주자로 부상하는 윤 정부 내각은 결국 당 장악
김기현 대표 체제 약체?...이재명 대표 저격수 누구

바뀔 것이라 전망도 김기현 대표의 집행부가 아닌 윤 정부의 인사들로 채워져 당을 총선 체제로 이끌 것이라 당원들의 분석이고, 책임감이 불분명했던 것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내년 총선 선거국면 비대위 체제가 합리적으로 전망되는데, 김 대표 평가는 당 장악력 부족 현상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활동도 중진들을 향한 힘지 출마 요구가 있었다. 대표가 앞장서 힘지 출마를 밝히지 못한 것도 답답함이다. 또한, 인요한 혁신위원장 활동의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위원회가 부상함으로 수평적인 위원회로 남

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곧 올 것이란 소리도 나왔다. 당 공천 손보기를 시작할 무렵 가시화가 될 것이라 전망이다.

특히 원희룡 장관의 발언을 분석하면 당이 어려워 자신도 돕는데 어떤 각오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로 나올 공산이 크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인천 계양구는 국힘 입장에서 어려운 협지다.

계양갑·을 부평을은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떠나자 인천 민심은 들끓처럼 타올라 이재명 대표 출마 반대는 극렬했다. 상

황이 더 달라진 것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선거의 돈 봉투 사건이 호재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입장문 부담감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대표 당사자 재판과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시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지역의 유권자를 외면하고 떠나 이런 상황은 원희룡 출마카드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한다.

현재 인천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석뿐이다. 1석은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나온 후 당선되어 복당한 윤상현 의원까지 합쳐 나온 의석수로 실제 인천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총 13석 중 11석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인천 서구에서 1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원희룡 장관의 인천 출마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제주도지사와 국토부 장관까지 역임한 무게감은 인천발전에 향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여론은 비교적 긍정적이다.

이학재 전 의원이 낙선 후 무주공산인 서구갑 등 인천에서 원 장관이 출마할 지역구는 다소 열려 있다. 아직 정확한 복심은 말하지 않았지만 현 정국의 분석은 인천이 원하는 민심과 충돌은 없을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은 국힘 유정복 시장이 민선 8기 당선되어 최근 산악회 모임 등 유 시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커지고 있다. 수명 참모들도 총선에 뛰어 들었다. 원 장관이 내려오면 전체 참모 수용은 안 되겠지만 중앙당도 1~2석 정도는 유 시장 참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미순 기자

인천시, 국제기구 간 상생발전 의견 교환 논의 인천국제기구협의회, 대표자 회의 가져

인천광역시시는 지난 22일, 송도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2023 인천국제기구협의회 대표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인천시와 국제기구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고기영 유엔 아태정보통신교육원 원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유정복 시장은 "국제사회와 인천의 미래를 위해 우수한 인천 지역의 인재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기구 직업체 프로그램과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참여와 협조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국제기구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재운 기자



데스크 칼럼



김양훈
위원

인천에 주소를 두고 살면 인천사람이다. 지역색보다 우선인 현 터전은 충청도와 전라도 등으로 내려가 거주하는 것이 아닌 인천사람이기

에 진정한 고향은 인천이다. 어찌 나의 터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사랑하지 않는 터전이면 빨리 인천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 살면 된다. 인천을 사랑해라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

인천에서 생을 마감해야 할 인천사람은 이 소중한 터전인 고향을 어찌 버리고 떠날 수 있겠는가. 가슴부터 먹먹해진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은 불나방처럼 권력에 취해 떠났다.

그 고위직은 인천에서 파스한 은혜를 입었지만, 정당의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인천을 버리고 서울로 가 인천사람은 큰 상처를 입었다. 필자도 가끔 오가다 보았던 인물이다.

수혜를 입고 정치적으로 큰 인물이 되어 정당의 대표까지 됐다.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비리연루 의혹 등 고작 이런 논란과 무엇을 해놓고 떠났는가, 인천사람 분개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충청·전라·경상·강원·경기·이북 등 본적이라고 해도 터전이 인천이면 인천을 사랑하는 자세가 최우선이고 지역 개발을 위한 이익은 개인 영달보다 우선이고, 지도자 자세는 달라야 한다.

지도층은 인천사람으로 살면서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고 있는가. 너도 속고 나도 속은 인천 지도층의 민낯으로 하나의 모델이 됐다. 사태가 이러해도 인천은 지역색이 첨예하다.

나는 충청도, 너는 전라도, 인천

사람은 없고 벽만 있다. 향우라며 교묘히 파고드는 정치인들의 생태계 현실은 자랑스러운 인천인이기 보다 출생한 고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출생지가 달라도 아버지가 충청도, 어머니가 전라도, 가족까지 파는 모습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출생지까지 속이면서 다음 선거를 위해 행보를 이어간다는 후문이다.

치졸한 향우·향토 타령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신분 상승을 꿈꾸며 팔아서 취하는 이득은 크다. 향우회 등에서도 우리 동향이야 밀자고 여론을 만든다. 향우회 목적이 변질됐다.

인천인의 자부심도 없는 말장난에 속아 대중은 그런가보다 응원한다. 지역을 알고 사랑하는 것과 무관한 정치 행동은 수면 아래서 이윤배반적 모습만 보여 주고 있어 부끄럽다.

최근만 그랬는가 남동구에서 정치활동을 했던 당협위원장이 갑자기 부산으로 떠났다.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그리고 끝이다. "인천사

람이 아닌 정치인들의 모습"이다.

인천에 "뼈를 묻지 않고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인가. 향토색이 아닌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인천발전을 가져올 인물이 필요하다. 진영에 논리로 선택된 인물은 믿을 수 없다. 인천 사랑 스피클을 보면 안다. 그간 진영 논리에 의하여 향우라는 미명아래의 폐단은 컸다. 은혜를 입었으면 영혼까지 팔아 인천을 발전시키려는 자세가 진정한 인천사람이다.

오직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은 뼈를 묻을 각오와 능력이 필요하다. 돈을 벌면 서울 떠날 사람이 아닌 이 터전에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견디며 봉사하는 인재 풀의 안착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색에 매몰된 그간의 인천은 당리당략으로 이용만 당했다. 능력도 안 되는 정치기레기는 향우라는 이름을 팔아 표를 받았다. 한둘인가. 정신 차려야 할 대상은 인천사람이다.

정치 지도자는 도덕성과 인천사람으로서 애항심이 깊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22대 총선부터 지역의 일꾼은 인천사람과 인천 사랑의 키워드를 가진 대세가 되길 기대한다.

정치기레기를 돕는 것이 아닌 인천을 떠나지 않는 투명한 지도자와 평판에서 지도자 덕목을 갖춘 인물을 국회로 보내자, 머리는 있어도 가슴이 빈 이들을 멀리하고 지역민 애로를 해결하는 투사를 뽑자.

인천사람이 인재를 키워야 할 과제다. 인물론에 메달라 있는 인천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다. 사물을 종합 예술적으로 바로 볼 수가 있는 인재를 선택해야 한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

인천인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이고, 행복을 주는 선물이다. 인천사람이 정신 차리고 미래를 위해 내일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간 향토색이 인천을 망친 부분도 반성하자.